대학평의원회

1. 회의제목 : 대학평의원회(22.10.19)

2. 회의일시 : 2022-10-19 수 11:00 ~ 12:15

3.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4. 참석인원

구 분	인 원	성 명
참석인원	7명	이시화,최승희,구자경,박재현,조종건,최진민,최강재
불참인원	4명	최종란,임상순,이진,김수우

5. 회의안건

가. 학칙 개정(안) 심의 의결
나. 2022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다. 임의특정목적기금(융자상환) 용도변경 사용의 건 보고

6. 내용첨부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_2022.10.19_최종.pdf 별첨

7. 의 견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2.10.19

의	장	이	시	화	2022/10/21 확인
위	원	최	승	희	2022/10/24 확인
위	원	구	자	경	2022/10/24 확인
위	원	박	재	현	2022/10/21 확인
위	원	조	종	건	2022/10/21 확인
위	원	최	진	민	2022/10/21 확인
위	원	최	강	재	2022/10/24 확인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2. 10. 14.(금)
위원정수 : 13명	재적위원 : 11명

1. 회의일시 : 2022. 10. 19.(수) 11:00

2.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309호)

3. 참석여부

구분	성명	비고
참석인원 (7명)	이시화, 구자경, 최승희, 최진민, 최강재(조), 조종건(외), 박재현(학)	간사 : 손명현 서기 : 임수현
불참인원 (4명)	이진, 임상순, 최종란, 김수우(외)	-

※ 이상무 기획평가처장(이하 "기획평가처장") 배석

4. 안건

가. 학칙 개정(안) 심의 · 의결

나. 2022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다. 임의특정목적기금(융자상환) 용도변경 사용의 건 보고

5. 회의내용

가. 개회

손명현 기획예산팀장(이하 "간사")이 대학평의원회 재적인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고 이시화 의장(이하 "의장")이 회의 개최 성원이 되었음을 공표하고 회의를 개회하다.

1) 학칙 개정(안) 심의 · 의결

(기획평가처장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최진민 의원 : 직제에 맞춰 동일하게 개정하는 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한다. 아울러 직제뿐만 아니라 규정 및 위원회 역시 현재 직위나 직책, 명칭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 기획평가 처장 : 전체 점검하도록 하겠다.
- 조종건 의원 : 대학내 부서간 업무추진시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학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들어 인권고충심의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보면 인권문제가 아니라서 다른 부서나 위원회로 이관하려고 하면 이관할 부서나 위원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
- 의장 : 위원회, 규정 등의 역할을 다시 정비하자는 의미인가?

- 조종건 의원 : 그렇다. 위원회나 각 부서의 규정간 기능과 역할의 빈틈을 줄이는 정비가 필요하다.
- 위원장 : 중요한 내용인 것 같다. 최진민 의원의 의견과 함께 이 역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 기획평가 처장 : 조치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학칙내 입학정원을 표기한 별표1과 별표1-1을 개정하고 간호학과가 2022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불인증되어 `학과폐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학과의 입학정원을 다른 학과로 분산하는 개정내용으로 먼저 별표1 이외에 2018년 당시 융복합전공의 신설 및 변경에 따라 별표1-1을 한시적으로 표기하고자 만들었으나 이후, 별표 1-1에 있는 융복합전공만이 남아 운영되고 있어 별표1-1을 별표1로 변경하고 별표1-1은 삭제하는 것이며, 개정하는 별표1에 간호학과 폐과에 따른 25명의 정원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수립된 조정안을 바탕으로 구성원별 공청회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한 조정안이 반영된 개정안이다.
- 최강재 의원 : 간호학과가 폐과가 되어도 현재 남아있는 재학생들은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외에 폐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나?
- 기획평가 처장 : 저를 비롯해 관련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승희 의원 :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어 학과장 공청회에도 참석했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해되지 않았던 점은 현재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학생 충원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종 안을 보니 재학생충원율이 낮은 학과에 많은 인원을 배정했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 기획평가 처장 :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나 모든 위원분들의 의견이 일치하진 않았다.
- 최승희 의원 :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재학생 충원율이 낮으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경쟁률과 재학생 충원율간의 간극이 있는 학과들이 몇몇 있다. 재학생 충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정원이 정하면 추후엔 바꾸기 어렵다. 한번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는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 최진민 의원 : 재학생충원율, 신입생경쟁률 등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하신 것 같은데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였나?
- 기획평가 처장 : 가장 큰 변동을 줬던 지표는 취업률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경쟁률과 재학생충원율 2개의 지표를 고려했으나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결과적으론 지표가 4개가 되었다. 지표대로 상위 학과들을 순서대로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입학정원이 30명이 되지 않는 학과가 상당수이고 최소한의 학과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정원을 30명 또는 40명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정량적인 지표로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정성적인 부분도 반영되었다. 구조개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안이 오늘 자료로 제공된 안이다.
- 최진민 의원 : 아쉬운 점은 정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판단하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입학정원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평가 측면에서 보면 주요지표중 신입생충원률이 12점, 재학생충원율 8점, 졸업생취업률 7점, 유지취업률 7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도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해서 배분한 점수이므로 우리도 이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박재현 의원 : 학생 비대위원들과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진행되어 참석을 했었는데 그 때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다. 그러나 최종안을 보니 그때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변동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어느 부분이 변동되었는지 말씀해주기 바란다.
- 기획평가 처장 : 공청회에 나온 의견은 모두 종합하여 교무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그 모든 의견들을 종합하여 교무위원들도 고심 끝에 내린 조정안으로 최초 조정안에는 국제지역학부에도 정원을 3명 배정하였으나 이후, 교무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들과의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이었던 문화예술계열 학과인 공연영상콘테츠학과와 실용음악학과로 정원 배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조정건 의원 : 최근 평택시의 정책도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학교도 이에 맞춰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기획평가 처장 : 최진민 의원의 말씀을 정정하자면 얘기해주신 교육성과지표 점수는 지난 인증평가때의 기준이고, 최근 교육부에서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 2가지만 고려하여 유지충원율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 지표에 반영한다고 발표한 바있다.
- 최승희 의원 : 그렇다면 더욱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을 고려해야하는 것 아닌가? 다시 검토되어야할 것 같다.
- 최진민 의원 : 이번 건은 2023학년도 정시 모집을 할 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지금 진행해야 한다.
- 최승희 의원 : 재학생충원율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가중치를 더 높여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 최진민 의원 : 최승희 의원 말씀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임시이사 체제이고, 지금 상황에서 대대적인 학과 통폐합이 이뤄진다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될 것 같고, 임시이사들도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는 이대로 진행해야할 것 같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면 반드시 전체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은 고려되어야 한다.
- 기획평가 처장 : 당연히 전략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함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입학정원은 간호학과 폐과로 인해 그 입학정원을 여러 학과에 분산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그것은 수시에는 반영하지 못했으나 정시모집에는 반영하고자 함이다.
- 의장 :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석했기 때문에 부가설명을 드리겠다. 이미 최승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은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전부 논의되었던 사항이다.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했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오늘 나왔던 의견들은 모두 기록하여 다음 구조개혁시 반드시 고려되도록 대학본부측에 제안하고, 이를 전제조건으로 이번 안건은 통과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최승희 의원 : 임시이사 체제라서 어려운 것도 이해하지만 반대로 정이사가 와도 오자마자 당장 학과구조조정을 진행하기엔 그분들도 부담이다. 또한, 유지충원율이 매우 중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재학생 충원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4명씩이나 정원을 증원시켜주는 것은 정말 반대한다.
- 의장 : 다시 고려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
- 기획평가처장 :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한다. 구조개혁위원회부터 각 공청회, 교무위원회

까지 모두 거쳐야 한다.

- 간사 : 이번 정원조정은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간호학과에 대한 행정처분(폐과) 공문이 9월 중순에 접수되었고, 접수되자마자 정원조정을 하기위한 절차를 시작하였다. 한달정도 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학과구조조정은 사실상 어려웠다. 2023학년도 수시는 비록 시기상 놓쳤지만 정시만큼은 빨리 조정을 진행하여 최대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진행했던 것이다.
- 최진민 의원 : 지금 상황에서 다시 구조개혁위원회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만 더 지연시킬 것 같다. 중재안으로 제안하자면 어떠한 지표를 어떻게 고려하여 이 결과가 나왔는지 데이터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다. 정확한 데이터를 본다면 의원분들도 납득하리라 생각한다.
- 조정건 의원 : 이번 정시모집을 위해 해당 안을 통과시키고 이후에는 전체적인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정원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의하면 어떨까 한다.
- 의장 : 여러 의원님 의견대로 이번 정시를 위해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상화가 된 이후 다음 구조개혁을 진행할 땐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학과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재청하는 것은 어떠한가?

(최승희 의원의 동의와 구자경 의원의 재청으로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되, 각 학과 정원조정(안)은 향후, 대학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재학생충원율 등 주요한 지표들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전체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을 세밀하게 진행할 것을 대학본부에 건의하는 조건으로 의결하다.)

2) 2022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문

(기획평가처장이 2022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다.)

- 최진민 의원 : 등록금 수입과 수강료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입학정원 총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재학생충원율 감소가 원인인가?
- 간사 : 둘다 영향을 미쳤다. 1차, 2차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입학정원이 매우 감소했고, 작년에 비해 재학생충원율도 올해 감소되었다.
- 최진민 의원 : 구조개혁평가로 인한 부분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예측할수 없었던 부분은 결국 재학생 충원율인데 이 역시 기대치보다 낮았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그리고 교원 보수 역시 4억정도 감소했는데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채용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가?
- 서기 : 교원 보수가 감소된 원인은 8/31일자 퇴직교원, 9/1일자 신규교원 및 승진자 등 교원 신분변동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감안하여 나간 급여가 9월 급여이다. 9월 급여를 기준으로 23년 2월까지의 보수를 예상해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원제수당쪽에서 약 1억원정도 감소되었고, 약 2억원은 교원퇴직수당 부담금에서 감소되었다. 이는 23년 2월 28일자로 퇴직하는 교원에 대한 예산이 최초에 잡혀있었는데 이는 2023학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최진민 의원 : 기부금의 경우 학교 상황이 어지러우니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막연히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산학협력단 전입금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의장 : 건물 매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피어선 빌딩을 진짜 매각할 수 있는 것

인가? 매각한다면 현재 재정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나?

- 기획평가 처장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해 법적으로 대학이 존속하기 위해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이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피어선빌딩을 매각하면 우리 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진다. 현재는 매각이 불가능하다.
- 최강재 의원 : 수익용기본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나?
- 간사 : 해당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를 확인후 별도 안내드리겠다.
- 의장 : 본 안건은 자문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없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다.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3) 임의특정목적기금(융자상환) 용도변경 사용의 건 보고

간사가 임의특정목적기금(융자상환) 349,988,252원 및 임의특정목적기금(융자상환)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3,316,208원을 비등록금회계(운영비)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고, 이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 사항임을 보고하다.

6. 폐회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이시화 의장의 건의와 전체 위원의 동의·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2시 15분에 폐회하다.

2022년 10월 19일